

## | 국제동향 |

# 경사노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AICESIS) 총회 및 AICESIS-ILO 공동 컨퍼런스 참석

손옥이 국제협력 전문위원

### ①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총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국이자 아시아대륙 사무부총장 국가로서 '19.10.9.~10.11.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및 AICESIS-ILO공동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은 세계 70여 개 국가의 사회적 대화기구 및 유사기구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서 각국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19~'21년도 신임 의장국 선출, 이사국 및 사무부총장 구성·임명건, 미래발전방안 논의, 재정 보고서, 활동 보고서, ILO와 UN ECOSOC과 파트너십 및 활동사항, '2019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출장단장인 양성필 운영국장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불확실성, 사회 양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문제 등의 상황에서 각기 다른 경제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하며,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에 AICESIS 의장·사무총장·회원국들은 한국 경사노위의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며 적극 지지 및 참여\*를 약속하였다.

\* 동 포럼 시 AICESIS 의장은 측사, 사무총장은 기초발제, ILO측은 전문가 파견, 중국·러시아·베트남·그리스·요르단·아르메니아·알제리·미얀마·네팔 대표단은 참석을 희망

### 〈 2019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9.11.12.~13,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 **참석 대상** :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10개국, AICESIS 사무총장·의장, ILO 본부·아태 사무소 전문가, Eurofound 등 국제기구, 유럽 및 국내 사회적 대화 전문가, 한국 노사정, 유관기관 등(약 100명)
- **주요 프로그램**
  - 아시아 각국 사회적 대화 현황(국가별 참석자 발표)
  - 아시아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전략(전문가 발표)
    - ① 유럽 : Eurofound 수석연구원
    - ② 아시아 : ILO 아태사무소 전문가
    - ③ 국내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아시아 지역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한 토론 및 제언
  - 선언문 채택

### ② AICESIS-ILO 공동 컨퍼런스

또한 출장단은 ‘사회적 대화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하는 ‘국제노사정 기구연합-ILO 공동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혁명 관련 우리 위원회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소개 및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참석 회원국들은 디지털 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어느 한 사례나 방안이 최선은 아님에 공감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참석국의 경우 디지털 혁명 관련 각국의 사례 및 경험 공유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대표단은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ILO 삼자주의거버넌스국 과장, AICESIS 사무총장, 신임 의장국(코트디부아르)과 포럼 참석 희망국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석 국가들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대화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대화 및 디지털 혁명 관련 한국의 경험 공유를 희망하였다.

사회적 대화 분야의 협력과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협력 증진, 적극적인 경험 공유 및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하여 경사노위는 베트남·중국·코트디부아르 등의 사회적 대화기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